

# 국제화 선도하는 문학출판 아방가르드

## 실험과 파격의 신선함 돋보이는 열음사

좀 단정적인 표현이 허용한다면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열음사(대표 김수경)는 한국 출판계의 아방가르드, 그중에서도 가장 아방가르드한 느낌의 출판사다. 물론 180여종에 달하는 총목록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한국유학사상론」(윤사순) 「10월 인민항쟁연구」(정해구) 「금강삼매경론」(김달진 편역) 등과 같은 '전위'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묵직한 '사상총서' 시리즈도 있고(30여종), 윤동주 김소월 김수영 서정주 노천명 박인환 등의 유명시인들의 '시인선'도 중요 목록으로 자리잡고 있다.

열음사가 전위적이다 실험적이다 하는 느낌 혹은 실제의 진원은 '열음현대소설선' '열음문학총서'와 같은, 단행본 영역에서 보자면 두 '총서'에 불과한 少數에서 나와 多數를 압도해버리는 위력을 지닌 그 시리즈들에 있는 것 같다. 더불어 내용의 실험성만큼이나 외형의 파격을 통해 늘 신선함을 유지해가는 「문학정신」 같은 월간 문학지,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펴내고 있는 계간 「외국문학」(88년 인수, 통권 39호)의 발간 같은 것이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이유들이다.

'열음현대소설선'의 소설에는 전통적인 소설양식을 크게 벗어나 독자들에게 충격과 새로운 소설읽기의 즐거운 부담을 주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섹스와 물결으로 얼룩진 삶과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는 주인공이 있고, 이름은 사라지고 기호가 인물을 상징하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 후기산업사회의 인간소의 타락한 性을 소재로 한 파격적인 구성의 소설이

있다. 이 목록에는 "문학성과 참신성"이 관건인 「문학정신」 신인공모를 통해 등장한 신인의 작품과, 기성 작가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설쓰기를 시도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열음문학총서'는 이 출판사의 문학관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가령, 「포스트모더니즘과 미국소설」 「포스트모던의 예술과 철학」 「포스트'시대의 영미문학」 등과 같이 후기산업사회를 해석하는 키워드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주목하고 일련의 이론서를 꾸준히 내온 점이라든지, (한 개인의 저술이기는 하지만) 「반리얼리즘 문학과」와 같이 "한국문학에 강력한 비평양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리얼리즘론을 비판적으로 해부, 그것의 역사적 퇴행성을 밝히"고자 하는 책에서 이 출판사의 문학관은 잘 대변된다 하겠다.

편집부장 노혜경씨에 의하면 '...소설선'의 책들은 "소위 잘 팔리는 책들이 아닌"데, 팔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그런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열음사 목록에서 눈길을 끄는 또하나의 '열음희곡선'이다. 문학분야의 독서치중률이 여타 분야에 비해 훨씬 큰 우리독자의 책임기 특성에 비춰볼 때, 그 문학분야도 시와 소설에 국한돼 있는 것은 특성중의 특성에 든다. 희곡 출판물도 드물고 읽는 분위기도 조성돼 있지 않은 환경에서 "문학작품으로서의 희곡의 위상을 정립하고...희곡언어의 특성을 폭넓게 이해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 선집은 물론 아직



동승동 사옥 신축관계로 편집부가 역삼동 '우리들 병원' 옆으로 잠시 옮겨가 있다.

중수도 5권에 불과하고, 창작희곡의 발굴에 미흡한 감도 크지만 그 '선도적인' 시작만큼은 열음사의 돈벌이로서의 출판이 아니라 문화사업으로서의 출판의 취지를 가장 잘 살려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이제 돈을 벌 테다." 김수경(46)사장이 요즘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말이다. '아마추어 문화운동가'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본격적인 '프로 사업가'로 나서겠다는 일념이다. 그러나 그 말은 '복부인'으로 나서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독자를 즐겁게 해주는 대가(엔터테인먼트류 출판)"로 얻은 "큰 돈"으로 더 멋진 문화이벤트를 펼쳐보겠다는 작가인 그 자신의 문학관만큼이나 실험적이고 모험심 넘치는 꿈이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표방하고 92년 차렸던 자매사 '있세'를 더 상업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다.

"출판의 상업성이 더이상 불온시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첨단기술의 영상매체는 갈수

록 더 재미로 소비자를 유혹하는데, 책은 여기서 머물면 큰 일이지. 책대로의 특성을 가지면서 독자를 개발해 나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해요." 그가 말하는 것은 너저분한 '장사용 책'이 아니라 독자를 책에서 눈을 못 떼게 만들 만큼 수준도 있고 재미도 있는 책이다. 앞으로 열음사가 내놓을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그 꿈의 현현을 보게 될 것이다.

열음사는 최근 미국 뉴욕에다 '열음사 인터내셔널'을 차렸다. 한국책의 미국에서의 출판이 아니라, 미국출판의 메카 뉴욕에서 미국 또는 세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사를 차린 것이다. 아시아계출판사로서는 미국내 최대자본이라 하는데, 따라서 김사장은 한해의 절반 가량을 미국에서 보낸다. "아시아계 출판사라는 특성을 살려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 문학작품을 발굴하는 등 '...서널'의 독특한 컬러로 승부할 겁니다."

— 정혜옥 기자

### 편집실무와 전자출판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2,000원

### 전자출판과 멀티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크라운판/이만재 외 역음/8,000원

### 전자출판론 I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0,000원

###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4,000원

### 우리글 바로잡기 실무 I

크라운판/편집부 편/8,000원/곧나옵니다

### 출판기획 편집실무 강의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0,000원

### 우리글 바로잡기 실무 II

크라운판/편집부 편/8,000원/곧나옵니다

### 교회출판물 기획 편집실무

크라운판/김경일 편저/10,000원

### 출판 사회학

크라운판/이정춘 편저/12,000원

### 신문 잡지 단행본 레이아웃 분석

크라운판/김두식 편역/10,000원

### 신문 취재 편집 레이아웃 실무

크라운판/김두식 편저/10,000원

### 편집핸드북 귀염둥이

4×6판/편집부 편/2,000원

### 한국출판문화 변천사

크라운판/부길만 백운관 공저/10,000원

## 책을 만드는 책들

◇《도서출판 타래》의 출판 편집 도서◇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09-3 상수빌딩 201호(우 121-160) / 전화 325-1945 · 5439 / 팩스 325-5439